



NH투자증권 '더 드림' ELS 총 100억 판매

NH투자증권은 18일부터 20일까지 수익성을 한층 강화한 신상품 '더 드림(TH EDREAM)' 파생결합증권(ELS)을 1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투자 기간 3년 동안 매년 상품의 연 수익률이 1%씩 상승하는 신상품이다. 기존 스텝다우형 ELS가 3년 동안 동일한 상품 수익률을 제공했다면 '더 드림ELS'는 투자기간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더 지급함으로써 수익성이 한층 강화됐다.

ELS 16782호는 니케이225(NIKKEI 225),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 (HSCEI),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만기는 3년, 조기상환 평가 주기는 매 6개월로 조기상환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 대비 90% 이상(6·12개월)이면 연 6.0%, 85% 이상(18·24개월)이면 연 7.0%(세전)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김문호 기자



대신증권 대신 ETN 홈페이지 오픈

대신증권은 16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대신ETN을 소개하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한 '대신 ETN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ETN(Exchange Traded Note·상장지수증권) 강화의 일환으로, ETN을 처음 접하는 투자자들도 보다 손쉽게 ETN을 이해하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ETN 상품구조 및 특성은 물론 거래 구조와 과세, 거래방법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대신ETN'란에서는 대신증권ETN 라인업과 상품별 정보도 제공한다. 현재가, 상품구조, 괴리율, 상장일, 만기일, 과세, 총보수 등 상품 개요와 기초지수 관련 사항 및 기간별 수익률도 조회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헬로우 M-에이블' 이벤트

KB증권은 16일 MTS 'M-able(마블)'에 해외주식 기능을 추가해 해외 및 국내주식 MTS를 통합하고 이를 기념하는 '헬로우M-에이블(able)'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능이 통합된 'M-able'은 하나의 화면에서 해외·국내주식의 현재가 조회와 매매가 가능하고, 하나의 관심종목에서 해외·국내주식 조화가 가능해 전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KB증권은 'M-able'의 해외·국내주식 기능 통합을 기념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헬로우 M-able'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문호 기자

정지원 "국내 상장사에도 공시대리인제 허용"

(한국거래소 이사장)

KRX, 하반기 코스닥 활성화 대책

1회 호가수량, 상장주식 1~2% 제한 불공정거래 예방·감시 시스템 구축

한국거래소(KRX)가 추가적인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주문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1회당 호가수량을 상장주식의 5%에서 1~2%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잘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외국기업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공시대리인제도를 국내기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시대리인제도란 법무·회계·컨설팅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공시업무 위탁해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 이사장은 "코스닥 공시담당자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공시규정을 숙지하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지 못하거나 단순 실수로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해당 제도는 공시유류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장심사 과정을 간편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량 코넥스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정 이사장은 "상장 예비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하고, 심사종료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거래소에 대한 인식을 '상장의 문턱'이 아닌 '상장의 조력자'로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선진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시가단일가 매매시간(오전 8~9시)을 적정수준으로 단축하고, 시간의 증가매매시간도 조정한다. 단축시간은 투자자 거래패턴, 해외사례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시가단일가 매매 시간은 10분, 싱가포르·홍콩은 30분 수준이다.

정 이사장은 "호가접수 시간이 전일 종가로 거래하는 시간의 증가매매 시간과 중첩되어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었다"면서 "시간 단축으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증권, 골드만삭스 등으로 촉발된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

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과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내부거래 예방을 위한 K-ITAS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상장법인 임직원의 정보를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에 등록하고, 자사주 매매가 발생하는 경우 상장법인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장법인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거래를 바로 점검할 수 있어 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삼성증권 사태와 같이 대량의 착오주문 제출로 인한 주식시장의 충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회당 제출가능한 호가수량을 제한한다. 기존 상장주식의 5% 수준에서 1% 또는 2%로 제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 자본 시장 설립도 추진한다. 우선 실무연구반을 조직해 남북경협시 자본시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공모가 2만9800원 확정... 오늘부터 청약



주주 가치 극대화 위해 공모가 ↓
상장 후 시가총액 약 4300억원



롯데정보통신 본사.

코스피시장 상장예정인 롯데정보통신 공모가가 2만98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롯데정보통신 관계자는 16일 "수요 예측 결과 공모 희망가밴드(2만8300원~3만3800원)에서 3만1000원 이상 가격을 신청한 기관이 전체 72%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공모가를 낮췄다"며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에 기반해 기업 가치를 올려 주주 분들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정보통신의 공모가 확정 공시

에 따르면 국내외의 총 423곳의 기관이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경쟁률은 79.33대 1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롯데정보통신은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와 최종 협의의 끝에 2만9800원으로 공모가를 정했다.

롯데정보통신은 오는 17, 18일 이

틀간 청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확정된 공모가를 기준으로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4300억원 규모다. 해당 자금은 기술 고도화,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개발, 글로벌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블록체인(block-chain), 모바일(Mobile), 인공지능(AI)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플랫폼을 확보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분야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금융·의료·유통·결제 분야를 집중 공략한다.

마음득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상장 후에도 정보기술(IT)신기술을 기반으로 대외 및 글로벌 시장확장을 통해 지속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빌딩. /연합뉴스

미래에셋대우 해외연수 프로그램 도입 글로벌 인재육성 힘쓴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에서 체류,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글로벌 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Global Leader Development Programme)은 혁신적인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글로벌 금융투자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내 공모를 거쳐 선발된 인원은 미래에셋대우의 글로벌 네트워크 10개국 14개 거점(현지법인 11개, 사무소 3개)에서 3개월부터 1년동안 연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국가별 현지 문화와 언어 습득,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홍콩 회장 겸 글로벌투자전략책임자(GISO)는 "미래에셋그룹이 고객의 사랑과 사회에 보답하는 길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인재를 꾸준히 육성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속도에 발맞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미래에셋그룹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재단인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국내 장학생 제도와 더불어 미래에셋 해외교향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600명씩 선발, 해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

외국인, 석달째 매도 공세... 지난달에만 7150억 순매도

코스피 시장서 1조2000억 팔아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 십억원, 결제 기준)

구분	'17년	'18년		5월	6월	보유잔고
		상반기	하반기			
주식	10,180	10,894	△714	△3,900	△380	596,891
채권	9,447	14,520	△5,073	12,022	3,266	110,562
합계	19,627	25,414	△5,787	8,122	2,886	707,453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석달째 이어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7150억원을 순매도해 지난 4월 이후 매도세를 지속했다. 코스피시장에서 1조2000억원을 팔아치웠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5000억원을 사들였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8000억원), 미국(-1000억원) 등은 순매도했으며, 아시아(1조8000억원)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2000억원), 케 이맨제도(-3000억원) 등이 매도 우위를 보였고, 싱가포르(1조4000억원), 호주(1000억원) 등은 순매수에 나섰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59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보유규모가 249조3000억원

(외국인 전체의 41.8%)으로 가장 컸고, ▲유럽 173조6000억원(29.1%) ▲아시아 71조8000억원(12.0%) ▲중동 22조9000억원(3.8%) 등의 순이다.

반면 외국인들은 채권시장에서는 7조 7890억원을 순매수해 총 2조610억원을 순투자했다.

순투자 규모는 5월보다 줄었지만 6월 말 기준 총 110조6000억원(전체 상장채권의 6.4%)을 보유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2000억원), 유

럽(9000억원), 미주(5000억원)에서 순투자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 50조4000억원(전체의 45.6%), 유럽 35조2000억원(31.9%), 미주 10조9000억원(9.9%) 등의 순이다.

종류별로는 국채(3조3000억원)는 순투자하고, 통안채(-1조4000억원)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잔존만기별로는 잔존만기 1~5년 미만(3조2000억원) 및 5년 이상(7000억원)에 순투자하고, 1년 미만(-1조8000억원)은 순유출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